



제1회 양림골목비엔날레 주제전시를 만날 수 있는 이이남 스튜디오의 야간 풍경.

빵집이, 식당이... 온 마을이 미술관

제1회 양림골목 비엔날레 둘러보니

동네 16개 카페 등 갤러리로 변신
이이남 스튜디오·최순임 작업실 등 눈길
오웬기념각·펭귄마을 공예거리 등 볼거리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걸어도 좋은 계절이다. 여기에 멋진 예술 작품이 어우러지면 즐거움은 더 커질 터. 지난 주 양림동에 다녀왔다. 올해 처음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5월 9일까지)' 나들이다. 양림동에는 화가들이 많이 산다. '마을이 미술관이다'는 컨셉의 이번 행사를 진행하기에 딱 좋은 여건이다. 100년의 시간을 지난 선교 사 사택들과 세월의 흔적이 어우러진 풍경들까지 더해지니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봄 나들이로는 그만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의 지원 없이 오롯이 주민과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해 여는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절, 자신들의 삶터인 양림동 상권을 예술로 활기있게 만들고 싶다는 작은 꿈들이 모인 결과다.

예술 여행의 출발은 방문자센터 역할을 하는 '10년 후 그라운드'다. 옛 은성유치원을 리모델링한 공간에서는 이번 골목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아트마켓이 열리고 있

다. 공간 이곳 저곳에 '숨은그림찾기'하듯, 한희원·최순임·정운학 작가 등의 작품이 걸려 있다. 사람들은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차 한잔 마시며 답소를 나누거나, 차분히 그림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이다. 한쪽 공간에는 양림동 등 광주·전남에서 만들어진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숍이 있다.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권하는 여행서적은 단돈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예전부터 탐났던 책을 뒤흔고른다.

안내 팸플릿을 길라잡이 삼아 기획전시 '영업#'이 열리고 있는 카페와 식당 방문에 나섰다. 모두 16곳인데, 발길 닿는 대로 둘러본다. 바로 인근 양인제과에서는 빵과 어우러진 이조흠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육각커피는 하늘을 소재로 한 양경모 작가의 작품이 커피향과 어우러졌다. 카페 PULL에 들어서니 한부철 작가의 소박한 수채화가 반긴다. 밥집에도 그림이 걸렸다. 행복한 양림밥상엔 박진, 캐주얼 식당엔 윤세영 작가의 그림이 걸렸다. 이탈리아 음식으로 유명한 마리오 웨프에선 이조흠, 메타포에선 정운학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양림로터리 인근 '라봉 커피'에서 만나는 건 최순임 작가의 작품이다. 그녀의 작품이 더 궁금하다면 사직도서관 바로 앞 그녀의 작업실인 '고양이의 숲 갤러리'(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가면 된다. 때론 작업중인 작품도 만날 수 있고, 소녀와 고양이 등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며 누구나 편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다.

광주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이이남 스튜디오로 발길을 돌린다. 신작 '생명의 경계' 등을 선보이고 있는 메인 전시 '생명의 위로-사

라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다' 전에서는 색다른 시공간에 빠져들며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과 커피숍의 경계가 따로 없는 공간에서는 '피에타' 등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고, 양림동이 한 눈에 내다보이는 옥상에서도 작품이 설치돼 있다. 봄바람이 부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커피 한잔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양림동 나들이는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다. 100년이 넘는 오웬기념각 야외 벤치에 앉았다. 동백꽃 봉우리가 봄을 알리고, 휴대폰으로 듣는 파헬렐의 '개는'이 더 없이 여유롭다. 바로 옆 펭귄마을과 다양한 촬영 스폿을 제공하는 공예거리를 지나 오랜만에 동네책방 '리브앤프리'에 들렀다. 평일인데도 서점엔 사람이 꽤 있어 괜히 마음이 놓였다.

한희원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한 후 저녁식사는 '초승달 커리'에서 먹는다. 이곳에는 다음 작가의 윤희애 작품이 걸려 있다.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가끔씩 눈을 들면 자연스레 작품이 눈에 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 다시 이이남 스튜디오로 발길을 옮겨본다. 낮에 바라본 풍경과는 전혀 다르다. 돌아오는 길, 다음 양림골목비엔날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날 지 궁금해진다.

오는 4월1일부터는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멋진 공간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로리언이 문을 열고, 양림동 작가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오후 2시30분), 토요일(오전 10시30분-오후 2시30분) 5명 규모로 도슨트 투어도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70-4239-5043.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5·18기념재단 '오월기억포럼' 12일 최유준 강연...유튜브 생중계

5·18기념재단이 3월 부터 매월 음악, 공동체, 문학적 시각으로 5월을 조명한 '오월 기억포럼'을 진행한다.

오는 12일 오후 2시에는 '오월의 노래와 초지역적 연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최유준(사진)을 주제로 최유준(사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가 강연한다.



미학과 감성 연구, 문화론을 바탕으로 '5·18 이후 '오월을 기억하는 노래'는 어떻게 확산되어 연대의 목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었을까?', '40년이 지난 오늘날 오월의 노래는 어떻게 들려지고 불러야 할까?' 등의 질문을 던진다. 사전공연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민중가요 리메이크 프로젝트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 14곡 중 일부를 소개한다.

4월 22일 오후 2시에는 강인철 한신대 교수가 '오월 광주의 커뮤니티스, 리미널리티, 그리고 사회드라마'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봄날' 임철우 작가와 2021년 5·18문학상 수상자와의 대담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오월 기억 포럼'은 5·18기념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문의 062-360-0543.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여성인문 '사람책을 만나다'

전남여성재단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인문어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를 진행한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에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에 따른 여파로 환경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에코페미니즘 시리즈로 준비됐다.

자연과 여성을 지배하는 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에코페미니즘은 그동안 주류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동물권, 여성의 몸, 가사노동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17일 첫번째 시간에는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장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를 주제로 강연하며, 4월14일에는 배민지 매거진 SSSL편집장이 '제로웨이스트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셸리 최소 한끼 비건레스토랑 대표가 '동네 한바퀴'(5월10일) 활동을 펼치며, 최형미 연세대 강사는 '우리들의 바느질이 세상을 살릴거예요'(6월16일)를 진행한다. 이밖에 '기후 위기와 감염병, 살림의 밥상', '에코페미니스트 활동가', '내 몸을 긍정하는 법', '캔들 나이트'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에코페미니즘 SNS 이벤트에 참여 시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전남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된다. 문의 061-260-7331-4.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트마켓이 열리는 '10년 후 그라운드'



양인제과에서 만나는 이조흠 작가의 작품



최순임 작가의 '고양이 숲 갤러리'

활짝 핀 매화꽃... '탐매-그림으로 피우다'

조현수 초대전, 4월 4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화폭에 매화꽃이 활짝 피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서양화가 조현수 초대전을 오는 4월 4일까지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탐매(探梅)-그림으로 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매화를 소재로 한 풍경화 등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대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매죽화'는 마치 만개한 매화나무를 보는 듯하고, 곧게 뻗은 대나무가 배경이 돼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조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해마다 봄이면 매화를 찾아 나서는 탐매는 선비들의 오랜 풍류였다"며 "매화를 찾는 것은 그저 꽃구경

이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고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몰입해 인간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15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조 작가는 280여회에 단체전에 참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 신작전 회원, 광주시미술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전남대병원의 조현수 작가 초대전은 지난 2016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매달 유명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현수 작 '매죽화'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